광주에 또 SSM… 영세상인들 '반발'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내달 6일 서구에 2곳 문 열어

광주 슈퍼조합 오늘 中企지역본부에 사업조정 신청

대형 유통업체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내세워 광주지역 골목 상권 잠식에 나서 영세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남구와 북구에는 대형 마트가 추가 출점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 상권이 초긴장 상태다.

30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하 슈퍼조합)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삼성 테스코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서구 풍암동과 치평동 2곳에 330㎡(100평) 규모로 문을 연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풍암점은 하나은행 풍암동지점 인근 지상 2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또 상무점도 치평동 쌍용·금호 아파트 앞 1층 건물 옥상에 냉장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영업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슈퍼조합은 3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다. 슈퍼조합은 "인구 대비 전국 최다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을 하고 있는 광주에 SSM이 추가 개점한다면 대기업 유통업체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골목상권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치평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가림막을 설치한 채 대형 냉장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벌여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 같다"며 "가뜩이나 대형마트에 손님을 빼앗겨서 장사가 안되는 마당에 코 앞에 대형 슈퍼마켓까지 들어서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지역에서 영업중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롯데슈퍼 11곳, 킴스클럽 3곳 등 모두 14곳이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오픈을 하면 16곳으로 늘어난다.

대형마트도 추가 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상권 붕괴가 우려된다.

최근 대형마트 운영업체가 대리인을 내세워 광주시 북구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만4천661.04㎡ 규모로 대형마트를 개설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반려된 바 있다.

또 삼성테스코가 2001년부터 주월동 백운광장 인근에는 7층 규모(연면적 5만3천여㎡)로 삼성홈플러스 주월점 신축을 위해 광주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했다가 보류되자 지난해 10월 사업규모를 2만9천524㎡로 대폭 축소해 남구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 주월점은 광주시와 예정 부지 한복판에 있는 1천907㎡ 규모의 시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입점이 잠시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홈플러스 예정부지와 직선거리로 400m에 위치한 무등시장 상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인술 무등시장상인회장은 "잠시 시간이 미뤄진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상인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대형마트 들어설 경우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30일 무등경기장에서 광주 고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 기아차 스포티지R.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재훈 (오른쪽에서 두번째)이사와 기아 타이거즈 윤석민(오른쪽) 선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스포티지R' 지역민에 첫선

프로야구 KIA 홈개막전서

최근 출시된 기아차 '스포티지R'이 30일 열린 기아타이거즈 홈개막전에서 지역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기아차는 이날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 입구에서 스포티지R 전시행사와 다채로운 팬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아차 서영종 사장과 기아 타이거즈 윤석민 선수가 참여한 포토 타임도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 기아타이거즈 팬과 선수들이 11대의 스포티지R에 나눠 탑승한 채 그라운드에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된다.

기아차는 경품으로 내놓은 스포티지R 1대를 다음달 1일 관람객 추첨을 통해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재훈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 이사는 "스포티지R은 세련된 스타일과 품질, 첨단 신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차량이다"며 "기아차의 광주·전남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협·새마을금고에서도 국고금 수령

韓銀 내일부터 지급

4월부터 광주·전남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통해서도 국고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고금 지급은 17개 시중은행과 우체국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그 외 수령자들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다음달부터는 전국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오는 8월에는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 국고는 지출금(국가사업비), 국세환급금, 관세환급금, 과오납금반환금, 근로장려금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고지급금 신청시 해당 기관에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새마을 금고 등에서도 손쉽게 국고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7900원짜리 초저가 청바지 나왔다

이마트 14일까지 판매

7천900원짜리 초저가 청바지가 대형마트의 기획 상품으로 나왔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정통 진(Jean) 페스티벌'을 열고 7천900원짜리 청바지와 국내외 인기 브랜드 진 캐주얼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7천900원 청바지'는 이마트 패션팀과 패션 전문기업인 신세계 인터내셔날이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과정을 협의하며 준비한 제품이다. 성인 남녀 및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청바지가 11가지 색상으로 18만장가량 확보돼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진 캐주얼 제품 470만점과 모자, 티셔츠, 캔버스화 등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캘빈클라인과 리바이스 등 해외 브랜드의 청바지를 3만9천~5만9천원에, 국내 인기 브랜드인 닉스와 인터크루, 보이런던 등의 청바지는 2만1천원~2만9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 5곳, 전남 3곳 등 이마트 전국 점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코스피 1700선 회복

외국인들 매수 행진 안착 여부 관심집중

코스피지수가 두달여 만에 1,700선을 넘어서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1,700대 안착 시도가 '3차 시기'만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폭발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위력을 발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 이외에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30일 코스피지수는 8.20포인트(0.48%) 오른 1,700.19를 기록했다.

이날도 2천589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며 이달들어 누적 순매수 규모를 5조1천359억원으로 키운 외국인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올해 들어 증시를 짓눌렀던 남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대외 악재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이 이런 전망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1,700대 안착을 시도했지만, 작년 9월에는 주요국의 유동성 확대 종료에 대한 우려가 지수를 돌려세웠고 지난 1월에는 재정위기와 중국 긴축우려 등이 잇따라 터지며 지수가 미끄럼을 탔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위기 등의 대외 악재가 잦아들고는 있으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경기 회복나 기업 영업실적 증가가 증시의 상승속도를 더 빠르게 할 만큼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하다는 의견을 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